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7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독일 유엔사 가입 의지 환영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10, 수) 오전 「올라프 솔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독일의 유엔사 가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치 공유국인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의사에 대해 논의하였고,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했습니다. 양 정상은 독일의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끝>